

# 행자부 조직 승인 차일피일...광주 세계수영대회 난항

**노조 전공노 가입 후 승인 미뤄  
운영비 등 정부 예산 편성 불투명  
때늦은 조직위 구성도 첩첩산중  
송정주공 지구 선수촌 협상은 순조**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난관에 부딪혔다. 다음달 19일 조직위원회 창립총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가야 하지만, 행정자치부가 시 노조의 전공노 가입 건으로 지원본부 조직 승인을 미루고 있어서다. 또한, 조직위 운영비 등 관련 예산도 정부안에 편성돼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3월 행정자치부에 부이사관(3급)을 본부장으로 한 정원 24명에 2과 5담당 규모의 세계수영대회지원본부 조직 승인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행자부의 승인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최근 행자부를 방문했지만, 시

노조의 전공노 가입건으로 행자부의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고 전했다. 광주시와 행자부는 시 노조의 전공노 가입건으로 현재 불편한 관계에 있다.

시 노조는 흥윤식 행자부 장관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소까지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각종 정부 사업과 관련해 광주시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8일과 29일 이틀간 시 조직관리 전반기 결산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시 관계자는 “보통 조직 승인에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리지만, 시 노조의 전공노 가입 건과 무관하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올 하반기로 예상되는 수영대회 조직위 구성도 첩첩산중이다. 5월19일 창립총회를 한 뒤 문화체육관광부의 재단법인 승인을 얻어 8월 법인등기 등을 거쳐 우선 35명 규모로 조직위 사무국을 꾸릴 계획이지만, 이 또한 제때 승인될 지 불투명하다.

광주U대회, 올림픽 등 대형 스포츠 이벤트의 경우 개최 5년 전부터 조직위 등이 꾸려졌던 것과 비교하면 광주시는 늦어도 한참 늦은 셈이다.

광주시는 U대회 성공개최의 노후를 살려 조직위 구성을 최대한 늦춰 운영비를 아끼려고 하지만 실기(失期)하면 회복이 힘들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예산 사정도 여의치 않다. 올해분 20억원의 지난 해 말 가까스로 국회에서 확보했으나 내년 예산(67억원)은 정부안 편성에 거쳐 의결해야 한다. 정부가 예산안 편성에 호락호락 응할지 의문이다.

작년의 경우 수영선수권대회 유치 과정에서 발생한 총리서명 도용 등 불미스러운 일을 빌미로 기재부는 예산편성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지역 정치권이 나서 정부를 압박하면서 어렵사리 국회 예결위에서 확보했다. 광주시는 이번 총선에서 여소야대 국회가 된 만큼 ‘국민의당’ 등 야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선수촌 건설도 산 넘어 산이다. 계림8구역은 애초 공모 내용과는 달리 조합 측에서 무리한 금전적 지원요구를 해 선수촌 이용에서 제외했다. 그나마 광산구 송정주공 지구는 사용자 협상이 큰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2019년 7~8월께 열릴 예정이며, 전 세계에서 선수와 임원 등 1만2000여 명이 참가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지만 U대회 성공개최 노후를 심분 활용하고 정부를 설득해 대회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보좌관 한명 없이...박영선 의원, 광주 양동시장 민생탐방**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28일 광주 양동시장을 찾아 민생탐방을 벌였다. 이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홀로 양동시장을 찾은 박 의원의 모습이 광주일보 카메라에 포착됐다. 더민주 의원 중 친호남파로 알려진 박 의원은 이날 시장을 돌며 상인들과 담소를 나눴다. 광주를 방문할 때마다 양동시장을 찾아 상인들로부터 ‘양동시장 아줌마’라는 별칭까지 얻은 박 의원에게 일부 상인들은 “왜 국민의당으로 가지 않았나”고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박 의원은 “정통 야당을 지키려고 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다시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국민의당 국회직 놓고 물밑 경쟁

3당 중 가장 먼저 당 지도부 구성을 완료한 국민의당이 이젠 국회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등 국회직을 놓고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다.

우선,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비록 제3당이지만 20대 국회에서 2명인 국회부의장 가운데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투표가 진행될 경우 국민의당이 어느 정당 후보에게 표를 던지느냐가 결정적 변수가 되는 만큼 여당인 새누리당이나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 모두 국회부의장 카드로 국민의당에 손을 내밀게 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당내에선 국회부의장 자리를 놓고 벌써 4선 의원들 간에 물밑 경쟁이 뜨겁다.

유일한 6선 의원인 전정배 대표의 이미 당대표를 맡아 부의장 후보군에서는 떨어져 있다. 따라서 김동철·박주선·박지원·정동영·조배숙·주승용 등 6명의 4선 당선인이 후보군이 된다. 이중 초대 원내대표인 주승용 의원과 박주선 최고위원, 조배숙 당

## 부의장 주승용·박주선·조배숙 물망 상임위원장은 장병완·유성엽 1순위

선인이 부의장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최고위원은 28일 “후배들이 원한다면 당연히 맡겠다”며 “원내대표를 함의추대한 선례가 있으니 경선보다는 합의 형식으로 원만하게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사상 첫 여성 부의장이라는 타이틀을 노리는 조 당선인은 “여성 대통령이 나오는 마당에 여성에게 기회가 왔으면 한다”고 말했다.

상임위원장은 대선이면서도 상임위원장을 맡은 적이 없는 3선의 장병완·유성엽 의원이 1순위로 꼽힌다.

국민의당은 18개 상임위(상설특위 포함) 가운데 법제사법위·산업통상자원위원회·농림축산식품

양수산위의 위원장을 배분받도록 원구성 협상에 우선순위를 둘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구상대로 위원장 자리를 배분받을 경우 유 의원은 농해수위원회, 장 의원은 산지위원장을 각각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국민의당에선 상임위원장 가운데 2~3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협상의 대가인 박지원 의원이 원내대표로 추대되면서 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장관급인 국회사무총장 자리에 총선에서 낙선한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이 임명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사무총장직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 승인을 거쳐 임명하도록 돼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

## 박지원 “대통령 협조 요청엔 국회의장직 아니라 무엇이든 협력”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에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대표로 추대된 박지원 의원은 28일 “대통령이 바뀌어서 협조요청을 하면 국회의장직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힌 뒤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간 경제가 한계에 왔다”면서 “우리 경제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데 돌팔매를 맞더라도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먼저 박 대통령이 경제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과 야당, 국회에 협력을 구하고 노동계의 고통도 함께 감수하자고 설득을 해주셔야 한다”며 “박 대통령이 야당 대표들을 설득하면서 국회의장도 집권여당으로서 중요하고 필요하니 국민의당이 협력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면 우리도 한 번 애국심을 발휘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새누리당과의 대연정 문제에 대해서는 “그것은 원칙의 문제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한나라당) 박근혜 대표에게 대연정을 제안했다가 집

토끼들이 다 날아갔다”며 “새누리당과 우리의 정체성은 완전히 다르다. 우리 정체성을 지키면서 그분들이 우리 정체성을 인정하고 오면 할 수 있다”고 전제조건을 제시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원내 협상실무를 담당할 원내수석부대표에 김관영 의원을 지명했다. 재선으로 20대 국회에 입성하는 김관영(전북 군산) 의원은 공인회계사, 행정고시, 사법시험을 패스한 ‘고시 3관왕’으로 재정경제부와 김연장을 거친 야당의 몇 안 되는 경제통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밝은광주안과 의원**

# 눈매교정술

졸린 눈, 짝 눈, 눈꼬리가 처진 눈, 쌍꺼풀 없이 눈매 교정이 필요한 경우 시행

**비절개 눈매교정수술**

눈꺼풀을 절개하거나 당기지 않으며, 눈꺼풀 안쪽으로 실을 넣어 눈을 뜨는 근육의 일부를 묶는 방법으로 눈매를 교정합니다. 현미경을 사용하기 때문에 더욱 정확하고 세밀한 수술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절개법에 비해 부기가 적고 회복기간이 짧아, 크고 자연스러운 눈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안과에서 눈 성형은 미용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눈의 기능적인 면을 고려해 시술할 수 있어 더욱 안전합니다.

◎ 세밀하고 전문적인 수술에 익숙한 성형안과 전문의가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 안과 / 소아안과 / 라식 / 라섹 / ICL / 백내장 / 녹내장 / 망막 / 눈성형 / 노안

신세계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밝은광주안과**

희망은  
언제나 있습니다

# 법인회생

**법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회사·병원 등 법인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법인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대표변호사 곽민섭**

- 광주지법 해남지원 지원장·부장판사
- 광주지방법원 판사(회생 및 파산업무)
- 특허법원 판사
- 법학박사, 경제학석사
- 세무사, 변리사

함께 이루는 밝은 세상

**법률사무소 희망미래** 062-228-2266